

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7, Vol. 18, No. 1, pp. 163~184.

청소년의 분노와 자기개념 명확성,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 탐구

양명희* · 김은진*

초 록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분노 수준이나 표현방식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인 유형이나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분노가 자기개념명확성이나 성격적 요인과 어떤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인문계, 실업계 4개 고등학교 남녀 2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특성분노가 높았으며, 분노억제라는 표현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분노를 표현 방식에 있어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는 세 집단, '억제형' '표출-통제형' '저분노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자기개념명확성과의 관련성을 보면 분노의 수준과 표현은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감소하는 뚜렷한 양상이 나타났다. 성격요인 측면에서 보면, 분노가 정서적 불안정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이 주는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 및 연구의 제한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분노, 자기개념명확성, 성격 5요인

* 경희대학교

I. 서 론

청소년기는 부모나 사회의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시기이면서 또한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 비행, 학교폭력, 가출 등의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가 정서, 특히 분노를 관리하지 못한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채유경, 2001).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Enright와 Fitzgibbons(2000)도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정신 및 행동 장애의 이면에 억압되고 미해결된 분노가 있으며 성인기의 정서, 불안 장애, 성격장애, 약물장애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분노는 이와 같이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로 인식되지만 출생 후 최초로 나타나는 핵심 정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느끼고 표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동안의 분노 연구는 크게 성인과 청소년이라는 두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 대상이 달랐던 만큼, 분노와 관련하여 가지는 관심의 방향과 내용도 달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분노는 주로 건강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는데, 고혈압, 심혈관 반응, 신체화 증상, 우울, 불안 등과 관련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학교적응, 공격적 행동, 학교폭력, 흡연, 음주와 같은 문제 행동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대부분의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분노가 어떠한 수준과 모습으로 존재하며, 다른 적응적인 심리적 변인들과는 어떠한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폭력이나 비행에 대한 자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분노에 대한 심리적 기초가 되는 연구나 그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고, 여러 요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 유발 요인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 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개인이 지각하는 분노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심리적 특성 예컨대 사고방식이나 신념, 자기개념, 혹은 성격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분

노가 자기개념명확성이나 성격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등학생의 분노의 수준의 정도와 표현방식을 살펴보고, 분노 표현방식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유형이 존재하는지 가능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자기개념은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윤점룡, 1982; 홍봉선, 1997)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분노와의 관계를 가 정해볼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분노의 수준과 표현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명확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지각하 는 이러한 분노가 일반적인 성격 요인과 어떤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그 관계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갈등과 상처 그리고 이로 인한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정서에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 는 일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분노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노가 자기개념명확성이나 성격과 어떠한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분 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기반 연구의 역할을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분 노

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정서이지만, 독립적인 주제로 연구되기 보다는 공격성이나 적대감, 다른 정서들과 총체적인 범주 하에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독자적인 정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공격성이나 적대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분노 연구를 주도하였던 Spielberger(1983)는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분노라고 보면 서, 분노, 공격성, 적대감 간의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분노는 정서 나 태도와 관계되는 반면, 공격성은 사람이나 대상을 향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 또한 분노가 상황적이고 일시적인 정서라면 적대감은 보다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각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차가 존재한 다. Spielberger(1980)는 분노의 수준을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구분한다. 상태분노는

흥분을 수반하는 일시적인 정서적 상태로, 특성분노는 상태분노를 일으키는 개인의 분노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분노 유발의 상황을 지각하는 빈도가 높으며, 상태분노로써 반응할 확률이 보다 높다. 서지영(1996)은 특성분노가 높은 대학생이 분노를 경험하는 횟수도 더 많고, 더 큰 강도로 경험함을 보고하였다.

분노의 수준 뿐 아니라 분노의 표출과 관련하여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는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분노를 억제하거나 때로 회피하기도 한다. Spielberger(1980)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의 세 형태를 구분한다. ‘분노억제’는 화가 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것(Averill, 1982; Funkenstein et al., 1954),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와 기억 혹은 분노 자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것을 포함한다. 반면 ‘분노표출’은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 양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는 것(Funkenstein, King & Drolette, 1954),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극단적인 모욕으로써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Spielberger et al., 1988)이다. 한편 ‘분노통제’는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표현 양식이다. 분노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냉정을 유지하려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Spielberger, Reheiser, Sydman, 1995).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분노의 수준과 표현방식

분노수준	상태분노	자율신경체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을 수반하는 일시적 정서 상태
	특성분노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경향성
분노표현	분노억제	분노감정을 참거나 억압하는 것
	분노표출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
	분노통제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것

학자들마다 분노 표현에 대한 의견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억압된 분노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개인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들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하는 반면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즉,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Tavris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면 할수록 분노의 강도가 더욱 증가함을 발견했다(강신덕, 1997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역기능적으로, 분노통제는 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된다(Biodeau, 1992; Gottlieb, 1999).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및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데, 외적 억제나 억압이 강한 사람은 심장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을 많이 보였으며, 분노억압이 강한 사람은 우울감과 절망감을 많이 보였고 자살 위험성도 높았다(김교현, 2000).

청소년은 아동기와 달리 인간관계와 생활내용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 분노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상태이다. 많은 청소년의 비행, 학교폭력, 가출 등의 부적응 문제가 분노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채유경, 2001). Dodge(1985)와 채유경(2001) 등의 연구는 부적응 청소년 집단이 적응 청소년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분노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자기개념명확성

Erickson(1968)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자아정체감의 획득을 강조한다.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평가를 의미하는데,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이다. 자기(self)라는 개념은 1890년대 제안되었지만 행동주의의 영향력으로 20세기 중반까지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부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자기개념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자아개념, 자기도식, 자기표상, 자기지식, 자기체계 등의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은 자아개념이었다. 자아개념은 각 개인이 어느 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하는 자기의 ‘내용’ 혹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자기개념명확성은 개인의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지, 어느 정도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일컫는다(Campbell, 1990). 이러한 점에서 자아개념과 분명하게 차별적이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과 같은 평가적 측면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인지적 측면을 다룬다. 즉,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도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기도식의 ‘구조’가 얼마나 명확한지와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아개념이 높더라도 자기개념 명확성은 낮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도식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자기도식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며, 시간적으로 안정이 되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뜻하게 된다(Campbell, 1990; Campbell & Lavalley, 1993). 따라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신하는 정도,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에 관한 하위 문항으로 측정되며,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 자기에 대한 명료성의 부족을 의미한다.

자기개념의 명확성 척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Campbell, 1996), 국내에서도 김대익(1998)이 Campbell의 척도를 사용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보편적으로 일반화되는 개념임을 입증하였다. Campbell(1990)에 따르면,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낮고, 자기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자기평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평정에 많은 시간이 소비하였다.

자기개념명확성과 불안을 다루었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불안의 경험을 더 많이 하고(Beck, Steer, Epstein, & Brown, 1990; Epstein, 1985), 우울감을 지각하기 쉽고(Brady & Kendall, 1992),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상황에서의 불확실한 감정을 더 쉽게 느끼게 된다(Campbell, Chew, & Scratchley, 1991)고 한다. 이와 같이 자기개념명확성은 인간의 심리적 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와 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응을 잘하고 분노, 우울을 적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각하며, 이를 정확하고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각한다(Haan, 1977; Jahoda, 1958; Jourard & Landsman, 1980; Vaillant, 1977). 자기개념명확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우울, 불

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연구되었으나 분노와의 관련성은 풍부하지 연구되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자기개념명확성과 분노와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성격 요인

성격은 가설적인 구성개념으로,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며 행동을 통해서 관찰된다. 이러한 연유로 성격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성격이론으로서 정신분석이론, 특질이론, 현상학적 접근이 있으나 정신분석이론과 현상학적 접근은 과학적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성격의 측정과 관련된 이론은 주로 특질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김정택, 정덕자, 1998). 특질론적 접근은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특질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반영함을 전제로 한다. 이들은 개인차를 가져오는 성격의 주요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된 특성들의 속성들을 연구하며, 이들 특성들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특질이론은 Cattell과 Eysenck등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성격 특성 차원이 크게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성격 5요인’ 이론에 동의하고 있다(Goldberg, 1990; 국승희, 2004; 한태영, 2005). 여기서 5요인은 학자들 간에 명명상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체로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한다.

성격의 5요인 이론에 기초한 대표적인 성격검사로 미국에서 개발된 NEO-PI-R이 있다. NEO-PI-R은 성격심리학의 특성이론을 근거로 하였으며, 요인 분석적 방법을 통해 개발되었다. NEO-PI-R은 정상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5개 특성 요인-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측정하는데, 5개 요인과 그 하위요인으로서 각 6개의 특성요인들을 세분화하여 일반적인 성격특성과 구체적인 성격 특성들을 측정한다. 이러한 성격 5요인은 성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독특한 개인행동의 예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McAdams, 1992).

성격 5요인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 성격 5요인은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문제해결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

였으며, 신경증적 불안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정서 상태를 통제 하려는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McCrae & Costa, 1986; 김명준, 전인식, 백연정, 2003; 김광은, 2004). 또한 성격 5요인은 갈등과도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 호감성이 낮고, 내향적이고, 신경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ijkstra, Dierendonck, Evers, & De Dreu,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성격 5요인과 불안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가정해볼 수 있다.

<표 2> 성격 요인 구조

5요인 구조	하 위 요 인					
외향성	온정성	사교성	리더쉽	적극성	긍정성	
호감성	타인믿음	도덕성	타인 배려	수용성	겸손	휴머니즘
성실성	유능감	조직화능력	책임감	목표지향성	통제력	완벽성
정서적불안정성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경험 개방성	상상력	문화	정서	경험추구	지적호기심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4개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6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132명, 실업계 135명이었으며, 남학생이 120명, 여학생이 147명이었다.

<표 3> 연구대상

	남 자	여 자	합 계
인문계	53	79	132
실업계	67	68	135
합 계	120	147	267

2. 측정도구

1) 분 노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STAXI-K을 사용하였다. STAXI -K는 상태분노 10문항, 특성분노 10문항과 분노억제 5문항, 분노표출 8문항, 분노통제, 8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70~.93에 이르러 비교적 적은 문항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신뢰도 계수를 보여주었다. 5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표 4> 분노 척도의 하위 차원별 문항수, 신뢰도

		문 항 수	신뢰도
분노 수준	상태분노	10	.93
	특성분노	10	.84
분노 표현 양식	분노억제	5	.70
	분노표출	8	.78
	분노통제	8	.78

2)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명확성 척도는 Campbell 등(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Campbell 등의 연구에서는 20문항을 통해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인구조가 명확하였던 12문항을 발췌하여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이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3) 성격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2001)에서 제작된 직업선호도 검사 (I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NEO-PI -R (NEO-Personality Inventory Revised)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5개 차원의 28개 하위요인으로,

총 1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수와 척도수 및 차원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5> 성격검사 구성요인 및 문항수와 신뢰도

성격 요인	하위 요인	문항수	신뢰도
외향성	온정성	5	.90 (29문항)
	사교성	7	
	리더쉽	6	
	적극성	5	
	긍정성	6	
호감성	타인에 대한 믿음	6	.77 (32문항)
	도덕성	4	
	타인에 대한 배려	6	
	수용성	5	
	겸손	6	
	휴머니즘	5	
성실성	유능감	7	.92 (39문항)
	조직화 능력	6	
	책임감	7	
	목표지향성	7	
	자기분노통제력	6	
	완벽성	6	
정서적 불안정성	불안	7	.90 (36문항)
	분노	5	
	우울	6	
	자의식	6	
	충동성	6	
	스트레스 취약성	6	
경험에 대한 개방성	상상력	5	.83 (27문항)
	문화	5	
	정서	5	
	경험추구	6	
	지적호기심	6	

IV. 연구결과

1. 우리나라 청소년의 분노의 특징

연구에 포함된 분노 하위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변인간 상호상관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태분노보다는 특성분노가 높으며, 분노표현에 있어서는 분노억제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분노수준에 있어 두 하위척도, 특성분노와 상태분노는 $r=.41$ 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p<.01$). 분노를 표현하는 세 표현방식 간의 상호상관도 유의하였는데, 특히 분노표출과 분노통제간의 상관($r=.42$, $p<.01$)이 높다.

<표 6> 분노 하위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

	분 노 수 준		분 노 표 현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전체 평균	2.11	1.36	2.32	1.81	1.95
남자 (n=120)	2.03	1.42	2.42	1.79	1.87
여자 (n=147)	2.18	1.32	2.24	1.82	2.01
인문계 (n=132)	2.08	1.33	2.30	1.81	1.93
실업계 (n=135)	2.14	1.39	2.35	1.80	1.97
특성분노	1.00				
상태분노	.41**	1.00			
분노억제	-.13*	.19**	1.00		
분노표출	.57**	.39**	-.17**	1.00	
분노통제	.49**	.48**	.17**	.42**	1.00

분노수준과 표현 방식간의 관련성을 보면,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을 많이 하고($r=.57$, $p<.01$), 분노통제도 많이 한다($r=.49$, $p<.01$). 반면 상태분노는 분노통제 표현 방식($r=.48$, $p<.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대표적인 배경적 특성으로 성별과 학교유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분노에 있어 남녀와 인문계/실업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7>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Type III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특성분노	성별	1.63	1	1.63	5.14*
	학교계열	.30	1	.30	.94
	성별*학교계열	.57	1	.57	1.81
	오차	83.21	263	.316	-
상태분노	성별	.59	1	.59	1.67
	학교계열	.10	1	.10	.28
	성별*학교계열	.32	1	.32	.91
	오차	93.61	263	.36	-
분노억제	성별	2.10	1	2.10	7.63**
	학교계열	.10	1	.10	.35
	성별*학교계열	.05	1	.05	.19
	오차	72.28	263	.275	-
분노표출	성별	.07	1	.07	.31
	학교계열	.01	1	.01	.05
	성별*학교계열	.00	1	.00	.01
	오차	60.10	263	.60.10	-
분노통제	성별	1.29	1	1.29	3.49
	학교계열	.14	1	.14	.37
	성별*학교계열	.38	1	.38	1.04
	오차	97.09	263	.37	-

<표 7>를 보면, 특성분노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만이 존재하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특성분노 정도가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반면 인문계나 실업계와 같은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노표현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노억제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만이 유의하다($p<.01$). 말하자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분노를 표현하는데 있어 분노억제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여학생은 특성분노의 정도가 더 높으며, 남학생은 분노를 표현하는데 있어 분노억제 기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상태분노, 분노표출, 분노통제에서는 남녀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인문계와 실업계라는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도 검증되지 않았다.

누구나 분노를 지각하고, 표현하지만 억제, 표출, 통제라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을 더 자주 사용하는지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분노 표현 방식에 있어 동질적인 집단을 검증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여러 목적을 위해 응용되지만 자료를 유형화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군집화를 위한 기준으로 분노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다. 수직고드름 도표와 덴드로그램을 통해 3개 정도의 군집의 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3개 군집이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이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분노 표현 방식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군집1 (n=79)	군집2 (n=61)	군집3 (n=127)	전체	F
분노억제	2.89 (.37)	2.25 (.49)	2.01 (.29)	2.32	142.49***
분노표출	1.63 (.34)	2.30 (.57)	1.67 (.30)	1.81	64.14***
분노통제	1.88 (.44)	2.75 (.50)	1.60 (.34)	1.95	162.72***
특성분노	1.93 (.47)	2.66 (.65)	1.96 (.39)	2.11	51.98***
상태분노	1.32 (.58)	1.85 (.83)	1.16 (.24)	1.36	35.26***
분노수준	3.25 (.82)	4.51 (1.20)	3.11 (.49)	3.47	67.41***

<표 8>은 이들 집단이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에 있어서 실제로 유의한 차이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1은 분노표출이나 분노통제에 비해 분노억제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군집2는 분노통제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분노의 수준에서도 가장 높다. 또한 분노표출 점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높다. 한편 군집3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집단으로, 저분노가 특징적이다. 따라서 군집1은 “억제형”, 군집2를 “표출-통제형”, 군집3을 “저분노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군집2를 “표출-통제형”으로 명

명한 이유는 군집1이나 군집3에 비해 분노표출과 분노통제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군집별 비율을 보면 군집1은 29.6%, 군집2는 22.9%, 군집3은 47.5%로, 전체 비율의 반 정도가 저분노형이었으며, 억제형이 표출-통제형보다 많았다. 이러한 구성 비율은 남녀 집단이나 학교유형과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였다.

2.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관련성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발달을 지속해나가는 시기로서, 이들이 지각하는 분노는 자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적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개념을 얼마나 명확하고 자신 있게 정의 하며, 그 정의가 얼마나 일관성 있으며 안정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심리적 구인으로 (Campbell, Trapnell, Heine, Kartz, Lavalley, Lehmann, 1996) 자아개념 연구에 비해 관심과 탐구는 소홀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가 자기개념 명확성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자기개념 명확성과 분노의 상관을 보면,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특성분노, 상태분노가 낮아지며, 분노표출과 분노통제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분노억제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분노 수준과 표현을 모두 하나의 회귀식으로 투입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을 예언하였을 때, 분노통제, 상태분노, 분노표출의 순으로 유의하였다.

<표 9> 분노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관 및 회귀분석 계수

	<i>r</i>	회귀 분석			<i>t</i>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특성분노	-.27**	-.11	.07	-.11	-1.48
상태분노	-.36**	-.24	.06	-.25	-3.72**
분노억제	-.06	.05	.06	.04	.74
분노표출	-.14*	.17	.09	.14	1.98*
분노통제	-.37**	-.25	.07	-.27	-3.77**
		<i>F</i> = 12.79	<i>p</i> = .00	<i>R</i> ² = .20	

분노표현에 따라 구별되었던 억제형, 표출-통제형, 저분노형의 3집단이 자기개념명확성에 있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다음의 <표10>에서 살펴보았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저분노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표출-통제형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분노의 정도가 낮을수록 자기개념은 명확하며, 분노가 높은 경우 자신에 대한 명료성이 부족함을 추론할 수 있다. 역으로 해석하자면,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분노의 정도는 낮아지며, 명확하지 못할수록 분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10> 3 집단의 자기개념명확성 차이: ANOVA 검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합	F
집단간	7.27	2	3.63	12.21**
집단내	78.47	264	.30	
자기개념명확성	군집1	군집2	군집3	
	3.05 (.48)	2.71 (.63)	3.12 (.54)	

3. 성격과의 관련성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내의 정신 신체적 체계이다. 성격의 주요 요인과 분노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11> 분노에 대한 성격 5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성격의 5 차원	분노 수준		분노 표현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외향성	.18**	-.13*	-.16*	.22**	-.16**
호감성	-.31**	.03	.30**	-.26**	-.03
성실성	.11	.03	.18**	-.07	.05
정서적 불안정성	.51**	.32**	-.02	.30**	.51**
경험에의 개방성	.01	.11	.16*	.11	.24**
R (R ²)	.63(.39)	.36(.13)	.41(.17)	.47(.22)	.5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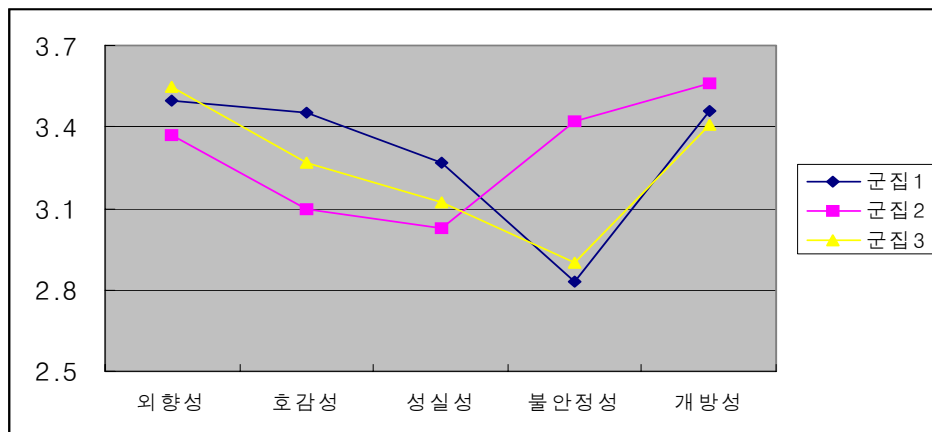
<표 11>에 따르면 분노 수준은 외향성, 호감성, 정서적 불안정성 차원과 관련성을 나타낸다. 성격은 특성분노 전체 변량의 63%를, 상태분노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해 준다. 분노표현 방식과 관련하여 보면, 성격 5요인은 분노통제에 대해 가장 높은 설

명량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감성과 성실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분노 억제를 많이 하며, 외향적이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분노표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 따라 구별되었던 억제형, 표출-통제형, 저분노형의 세 군집의 성격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12> 3유형에 따른 5요인 성격 특성의 차이: ANOVA 검증 결과

	군집1	군집2	군집3	F
외향성	3.50	3.37	3.55	2.16
호감성	3.45	3.10	3.27	16.18**
성실성	3.27	3.03	3.12	4.85**
정서적 불안정성	2.83	3.42	2.90	41.42**
경험에의 개방성	3.46	3.56	3.41	2.02

세 군집은 성격의 다섯 차원 중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의 세 차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군집1 (억제형)이 호감성과 성실성이 높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다. 군집2 (표출-통제형)는 호감성과 성실성이 가장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가장 높다. 반면 군집3 (저분노형)은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군집에 따른 성격 5요인 점수

V. 결론 및 논의

청소년은 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서적 동요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학업, 진로, 가족, 친구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커다란 스트레스를 느끼고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분노가 자기개념명확성이나 성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특성분노가 높으며,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노억제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억제형' '표출-통제형' '저분노형'이라는 세 개의 구별되는 집단이 존재한다. 자기개념명확성측면에서 보면, 분노수준과 표현은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감소한다.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분노가 정서적 불안정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결과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키려면 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분노의 수준을 낮출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말하자면 분노를 낮추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분노의 수준과 표현을 줄일 수 있다. 학교 장면과 관련하여서는 생각해볼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 합리적 사고, 행동통제, 자기조절력 등이 분노를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표출-통제형”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분노통제를 잘하지만 동시에 분노를 가장 많이 표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출-통제형 청소년들의 분노 수준이 높고, 자신의 화가 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다툼을 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지각이 다소 불안정하고 불분명함을 추론할 수 있다. 자신의 성격을 포함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신념, 내적 일관성 등은 학습 가능하다. 이들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부정적인 자아개념, 공격성, 충동성 등 분노유발 요인을 제거시

키고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있을 때 자신의 분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성인기에 도달하여 개인과 가정이 치러야 할 많은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분노 정도는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특성분노와 상태분노 모두 낮아지며, 분노표출과 분노표현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분노 집단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이 가장 높았으며, 표출-통제형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분노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음을, 혹은 역으로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고 대처할수록 자기개념이 명확해짐을 나타내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 만남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자기개념명확성과 성격적 특성에 따라 분노의 수준과 표현이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들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분노대처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격적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노를 지각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은 무의식적으로 선호하거나 습관화된 패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호나 패턴, 경향성은 결국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성격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여기에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분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떻게 분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해야 하는지를 자기개념명확성과 성격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살펴보았다.

분노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 특성이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분노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은 건강한 적응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데 있어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모든 연령을 포함하지 못하고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들의 분노를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신덕(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제5권 제1호, pp. 81-143.
- 국승희(2004).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성격의 5요인 모델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3권 제4호, pp. 983-998.
- 김광수(2001). 용서에 대한 고찰과 교육적 적용. 교육학 연구, 제39권 제2호, pp. 1-24.
- 김광은(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제16권, pp. 53-69.
- 김교헌(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5권 제2호, pp. 181-192.
- 김대익(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준 · 전인식 · 백연정(2003). 성격유형과 우리의 삶.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노동부(2001). 직업선택도검사 실시요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서지영(1996). 특성분노의 반응양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규 · 한덕웅 · 이장호 · Spielberger(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권 제1호, pp. 60-78.
- 정충영 · 최이규(1997).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채유경(2001). 청소년 분노표현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태영(2005). 청소년의 학교장면 스트레스: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2권 제2호, pp. 177-197.
- 홍경자 · 채유경 · 이명자(2000).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그들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 161-181.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
- Beck, A. T., Steer, R. A., Epstein, N., and Brown, G. (1990). Beck self-concept test. *Psychological Assessment*, 2, pp. 191-197.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rady, E. U., and Kendall, P. C. (1992).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Bulletin*, 111, pp. 244-255.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pp. 539-540.
- Campbell, J. D. and Lavalley, L. F. (1993). *Who am I ? :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3-20). New York: Plenum.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rtz, I. M., Lavalley, L. F., and Lehman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141-156.
- Campbell, J. D., Chew, B., and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 473-505.
- Dijkstra, M. T., Dierendonck, D., Evers, A., and De Dreu, C. K. W. (2005). Conflict and wellbeing at work: The moderating role of personal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0, pp. 87-104.
- Dodge, K. A. (1985). Attributional bias in aggressive children.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ory*, 4, pp. 73-110.
- Enright, R. D. and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APA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unkenstein, D. H., King, S. H., and Drolette, M. E. (1954). The direction of anger during a laboratory stress-inducing situation. *Psychosomatic Medicine*, 16, pp. 404-413.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ve of personality: The big 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pp. 26-42.

-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 Haan, N.(1997). *Coping and depending*. New York: Academic Press.
- Hammond, M. S. (2001). The use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s a therapeutic tool in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27 No. 3, pp. 153-165.
- Jahoda, M. (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 Jourard, S. M. and Landsman, T. (1980). *Healthy personality: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humanistic psychology*(4th ed.). New York: Macmillan.
- McAdams, D. P. (1992). The Five-factor model in personality: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60, pp. 329-361.
- McCrae, R. R., and Costa, P. T. Jr.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pp. 81-90.
- Spielberger, C.D. (1980). *Preliminary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Scale(STAS)*. Tampa, Florida: University of South Florida Human Resources Institute.
- Spielberger, C.D., Jacobs, G. A., Russell, S., and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pp. 159-187.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and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N.Y.: Springer Verlag.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and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H. Kassino(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p. 1-26). Taylor & Francis.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ABSTRACT

The Empirical Study on the Adolescents' Anger :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Clarity and Personality Traits

Yang, Myong-Hee* · Kim, Eun-Ji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adolescents' anger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clarity and personality traits. The surveys of anger, self-clarity and personality traits were administered to 267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rom 4 schools near Seou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adolescents are higher on trait anger than on state-anger. They are also higher on anger-in disposition. Second, the higher the self-concept clarity, the lower state anger, anger expression and anger control. Third,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anger and personality traits such as neuroticism, extroversions and agreeableness. The stronger neuroticism, the higher level of the anger. The stronger agreeableness and extroversions, the lower the level of anger. Consequently, it is found that the self-concept clarity plays a significant role on the anger. It is also found that the level of anger & the expression is more affected by personality trait than self-concept clarit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provide the empirical basis for the future study.

Key Words : anger,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traits, cluster analysis

투고일 : 3월 29일, 심사일 : 5월 3일, 심사완료일 : 5월 18일

* Kyunghee University